

38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복음의 동역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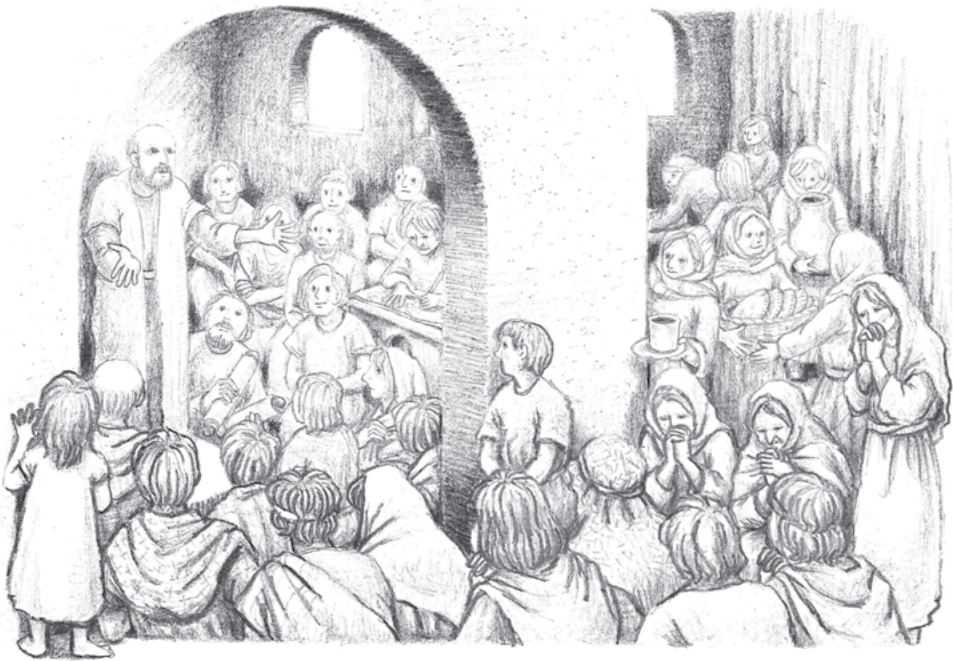
롬 16장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 6장 (당신이 지쳐서)

오늘 배울



1.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를 주셨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2. 동역자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며 같은 보조로 일해야 함을 압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
 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3~4)

또 참으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
 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에 있느니라 (빌 4:3)



을 이해하기

동역자(Fellow Workers)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와 아볼로, 실라, 마가, 누가, 디모데, 디도와 그레스게 같은 복음 전파자들뿐 아니라 그의 편지를 대서하는 디디오, 평신도로서 그들을 돕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뵈뵈, 스테바나, 가이오, 에바브라, 오네시보로, 아리스다고, 마리아, 안드로니코와 유니아, 베티 등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이처럼 진실된 복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물들을 로마 교회에 일일이 소개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동역자들 간에 서로 합심하여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그러한 자들을 문안하며 위로하고 서로 존경하며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역자들의 마음을 사단이 분열시키고 갈라놓으려 한다는 사실도 일깨워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위해 협력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 4:9~10)

Two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a good reward for their labor. For if they fall, one will lift up his companion. But woe to him who is alone when he falls, For he has no one to help him up. (Ec 4:9~10)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교제에 있지 않고 “홀로” 있어 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예수님께서서는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열두 제자를 둘씩(막 6:7~13), 70명의 제자들을 둘씩(눅 10:1~17)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각자 보낸다면 훨씬 많은 지역에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었을텐데 둘씩 짝지어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절을 읽어보고 답해 봅시다.

2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을 읽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 봅시다.

- 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모습처럼 구원받은 성도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읽고 답해 봅시다.

- ② “멍에”는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 쟁기를 뒤에 달아 밭을 갈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나와 같이 멩에를 같이 한 자”는 누구일까요? 또 멩에를 같이 맨 목적은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읽고 답해 봅시다.

3

동역자인 형제, 자매들과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들을 품어야 할지 빌립보서 2장 2~4절을 읽고 정리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전 4:9~10

의

전 4:11~12

화

롬 16:3~4

↑

고전 3:9

↓

고후 6:14

↓

고후 8:23

↓

빌 4:3



실 수 없는 전쟁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 1829~1912)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어 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내는 전도는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성전(聖戰)이라 생각하고 구세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그가 불행한 환경을 이기고 만난(萬難)을 극복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된 후 어느 날 유명한 장군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군의 부인이 “이제 장군은 칼을 버렸지요. 칼 대신 깡이를 가지고 매일 밭에 나가 한가로운 농부의 생활을 한답니다”라고 했을 때 부스는 “각하의 전쟁에는 평화도 있고 쉴 때도 있군요. 그러나 우리들의 전쟁에는 휴전이나 휴식이 없습니다. 매일 긴장하고 계속해야 할 전쟁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겐 보급도 없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나 받게 되겠지요”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엡 6:12~13)



질문 있어요~



아직 학생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결혼 상대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왜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지 않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인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곳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은 금지되었고(신 7:1~4, 수 23:11~13),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애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후 6:14~16)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결혼은 너무나 우스꽝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빛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한 목적을 향해 살 수 있겠습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거리하여 갈지 말며” (신 22:10)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결혼은 결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